

부산 메리놀병원 분규 타결

여성 노동자 단결력이 큰 힘

파업·농성 21일째, 노조 요구 완전 수용



추석귀향도 마다한 채 부산 메리놀 병원 마당에서 병원측의 각성을 요구했던 노조원들.

병원측의 하계휴가비 중단과 단체협약 불이행이 발단이 돼 지난달 30일부터 조합원 2백여명이 철야 파업농성을 해온 부산 중구 대청동 메리놀병원(원장 윤경철 신부·39) 노동쟁의가 파업 21일만인 19일 하오 병원측이 노조의 요구조건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타결됐다.

철야 파업농성 21일이 지난 동안 처음 문제가 됐던 휴가비는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따라 전직원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 공고도 부착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와 동시에 김수학 씨(메리놀병원 노조위원장·35) 등 노조간부 11명을 업무방해·명예훼손·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같은 병원측의 행위는 노조의 단결을 깨기 위한 술책이라며 노조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농성 14일째인 지난 9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엔 병원측이 공권력투입을 요청해 노조원 40여명이 연행되고 일부 여성조합원들이 심한 부상을 당하는 등

극적 타결로 일단락 지워진 이번 메리놀 파업농성의 중요한 의미는 〈경찰과 관계당국 그리고 병원측에 의한 노조탄압 분쇄〉투쟁으로까지 발전한 노동자들의 단결된 행동에 있다. 13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에도 전 조합원이 노조를 끝까지 지키자며 귀향치 않고 농성장에 남아 노동현장극 〈아빠 힘내세요〉를 환자들과 함께 관람하며 한가위를 보냈던 것.

이번 농성에 대해 김수학 노조위원장장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노조와 노조간부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병원측의 회유와 협박·유언비어 유포 등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단결해 끝까지 싸워 이겼다. 그 과정은 노조간부들에게 더 큰 사명감과 애정을 안겨주는 눈물겨운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87년 7·8월의 전국 노동자 대투쟁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자주적 노조설립과 때를 같이해 87년 12월 9일 설립된 메리놀노조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후생

안전산후 휴가나 생리휴가 보장 등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왔다. 이번 파업·농성의 과정을 통해 메리놀 조합원들의 의식 수준은 크게 향상됐으며 특히 여성조합원들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놀의 경우 일반 병원노조와 마찬가지로 전체 노조원 4백22명중 70여명의 남자조합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여성조합원들이다.

노조 여성부장 김숙영(간호조무사·26) 씨는 “여자들이 더 잘 싸우고 농성장의 질서유지와 규율준수에 모범적이었다. 물론 기혼여성의 경우 시부모나 남편의 조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곤경에 처하기도 했으나 단결로 싸워 이긴 지금은 가족들의 이해도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한마디로 노조원들의 단결된 힘과 메리놀 사태에 대한 부산지역 각계의 연대 지원 움직임이 조속한 타결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이 병원 사용자 측은 당초 노조측이 제시한 〈노조간부 고소 및 고발 취하〉〈파업기간은 정상근무로 인정〉〈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파업상태와 관련한 구속자 발생시 석방과 동시원직에 복직시킬 것〉 등 4개항에 합의하고 파업으로 인한 환자 및 부산시민에게 불의를 빚은 데 대해 도의적 사과도 표명키로 했다.

이에 노조측은 농성을 완전 해제하고 20일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조선혜 기자〉